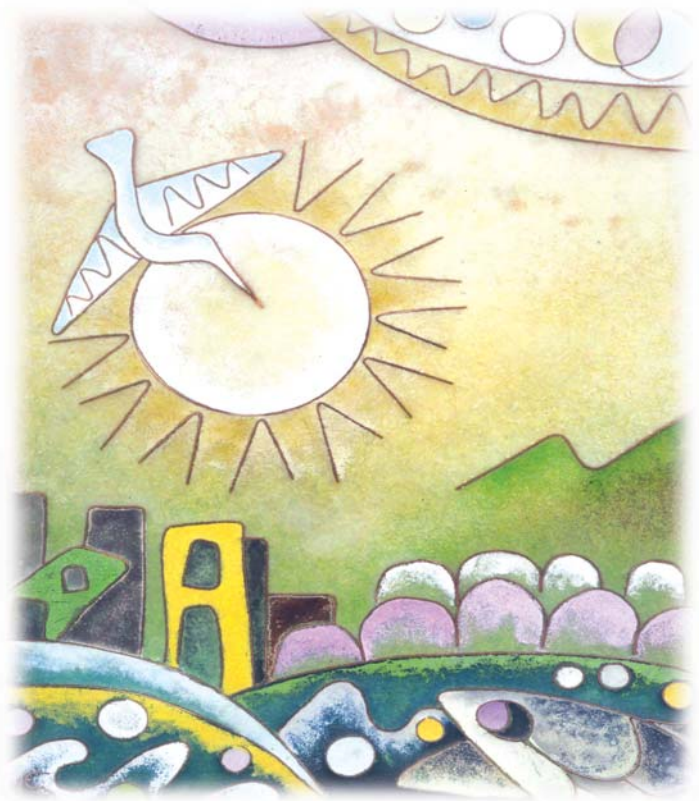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1년 1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최후의 심판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푼 것’ 1, 2절을 부르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굶주림



마더 테레사



수단의 슈바이처 이태석 신부



쪽방촌의 슈바이처 선우경식(요셉)원장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마태오 복음 25장 31-4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릴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에 임금님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

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 들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보았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 없을 때는

- 나 자신이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기뻐했던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쪽방촌의 슈바이처’ 요셉의원 선우경식(요셉) 원장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내과 과장을 지내던 선우 원장의 운명은 1983년 가톨릭의대 후배들 요청으로 무료진료 봉사를 하러 서울 관악구 신림동 철거민촌을 찾은 것을 계기로 완전히 바뀌었다. ‘가난하고 소외된 병자를 돌보라’는 부르심에 응답, 1987년 무료 복지병원인 ‘요셉의원’을 설립해 본격적 봉사의 삶에 뛰어 들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시작한 동료 의사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결국 혼자 남은 선우 원장은 1997년 4월 관악구 재개발사업으로 보금자리를 잃은 뒤에도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영등포역 쪽방촌으로 옮겨 변함없는 사랑의 인술(仁術)을 베풀어 ‘쪽방촌의 슈바이처’, ‘노숙자들의 아버지’로 불리며 존경을 받아왔다.

그동안 요셉의원에서 진료비 한 푼 받지 않고 치료해 준 환자들은 무려 42만여 명에 이른다. 요즘도 하루 평균 80~100여 명의 환자들이 이곳을 찾는다.

생전에 “나 역시 오래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3년만, 다시 2년만 더’하다가 여기까지 왔을 뿐”이라던 선우 원장은 “힘들고 어려울 땐 도망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돈이 없어 아프다는 말도 못하는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병들고 돈 없는 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무작정 시작한 무료병원에는 폐인이 되다시피 했던 많은 노숙자들과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찾아들었다. 그들은 선우 원장의 지극한 보살핌으로 재활을 거쳐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도 했다.

부와 명예 대신 소외된 이웃을 선택해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던 선우 원장은 겨우 차비 정도의 월급만 받으면서도 돈이 생기면 환자에게 나눠줄 약을 샀고, 길에 쓰러진 노숙자를 보면 식당에 데려가 밥을 먹였다. 그런 마음으로 평생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수도자처럼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다. 선우 원장은 이제 비로소 고단한 삶을 접고 영원한 천상 행복을 찾아 떠났다. 이 각박하고 거친 세상에 커다란 ‘사랑의 등불’ 하나 밝혀 놓고….

(2008년 4월 27일자 평화신문)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시다.

(실천사항을 정한 후 본당 공지사항과 기타토의를 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푸는 것’ 3절을 부릅시다.

궁금
했어요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본당마다 다른데,
교회가 지향하는 평화의 인사는
어떤 것이지요?

우리 신자 분들께서 평화의 인사를 너무 거룩하게(?) 혹은 무겁고 냉랭하게 나누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께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 합송되면 냉철하게 그만두는 일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평화의 인사가 이렇게 메마른 행위일까요? 상대에게 주님의 큰 평화가 쏟아지기를 기원하며 웃는 얼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는 평화는 바로 내 삶 안에 주님의 평화를 불러들이는 첩경이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내가 빌어 준 평화를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크고 많은 평화가 나에게 되돌아 올 것이라는 보장까지 해주셨기에 더욱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루카 10,5~6)라는 말씀은 상대가 어느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주님의 평화를 한껏 빌어 주라는 명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아낌 없이 주님의 평화를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이지요.

이 소중한 약속에 응답해 드리는 평화의 신비를 차갑고 냉랭하게 혹은 아는 사람들과만 나누기보다 풍성한 평화의 인사로 온 세상이 주님의 평화로 가득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소공동체에서 시작되는 하느님 나라

김둘자 스텔라(회원동본당, 구역분과장)

회원동본당은 본당설립 30주년을 준비하면서 성전 새 단장을 위해 온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기도를 바치며 정성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회원동본당 소공동체는 12개 구역 2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역장들이 구역분과위원으로 구성되어 본당 사목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의 사목방침에 따라 구역장, 반장, 총무들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월례회 모임을 갖고 반별로 소공동체 모임을 가집니다.

여느 본당에서 그렇듯이 회원동본당 구역분과와 각 소공동체에서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실시되는 봉성체에 협조하고 있으며 쉬는 교우 파악 및 회두 활동에 참여합니다. 교우가 상을 당하면 구역별로 시간을 정하여 연도를 바치고 있으며 부활, 성탄 판공 성사 때 성사표를 나누어 주고, 본당의 날 행사 때에는 구역별로 단합하여 식사 나눔과 장기자랑 등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구역활성화를 위해 신부님께서 각 구역을 방문하시고 구역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쉬는 신자와 주일만 지키던 신자들이 신부님의 권유로 본당 간부직을 맡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늘어나자 구역방문이 끝난 후 신부님과 수녀님의 권유로 12개 구역으로 구역이 재편성되어 효

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석이었던 구역의 구역장과 반장도 새롭게 임명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구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재개발로 인하여 흩어져 있던 5구역(벽산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반원들이 하나 둘 모여 소공동체 모임을 하게 된 것은 본당의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소공동체를 통하여 이웃에 이사 오는 교우들을 파악해 정보를 얻고 구역장과 반원들이 방문하여 기도와 영적대화로 친교를 나누면서 전입해오는 신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쉬는 신자가 많은데 반원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본당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활동하는 반장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각자에게 맡기신 본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데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구역장 반장님들께서 개인적인 생활은 물론 본당 활동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시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을 바쳐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께서 하느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소명을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회원동본당 모든 소공동체 구성원들이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성화시키고 우리 일상의 삶 자체를 하느님께 바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여 봅니다.

복음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